

기업단기연체정보의 유용성

기업단기연체정보는 **기업 신용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임이 실증적으로 입증

- 최초 단기연체발생후 해제된 경우에 1년 이내에 부도 발생율을 분석한 결과, 연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도 1년내 부도율이 26.28%, 30일미만인 경우 32.50%, 60일미만 44.54%, 60일이상 79.24%로 급격히 증가

구 분	연체일수	전체 부도율(%)	법인기업 부도율(%)	개인사업자 부도율(%)
기간별	10 ~ 19	26.28%	29.78%	25.28%
	20 ~ 29	32.50%	32.44%	32.52%
	30 ~ 59	44.54%	38.43%	46.94%
	60일 이상	79.24%	72.35%	82.50%
누적 기간별	60일 이상	79.24%	72.35%	82.50%
	30일 이상	65.88%	60.30%	68.34%
	20일 이상	54.56%	52.15%	55.52%
	10일 이상	42.22%	43.76%	41.69%

기업단기연체정보를 활용한 부실징후 판단 사례(1) : 제조업종

여러 건수의 다중 연체(대출금, 카드 등)가 발생하는 경우 → 부도 가능성 높음

: 1개월 이상 기간동안 다중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주)OO은 2003년 설립된 제조업체로 2013년 1월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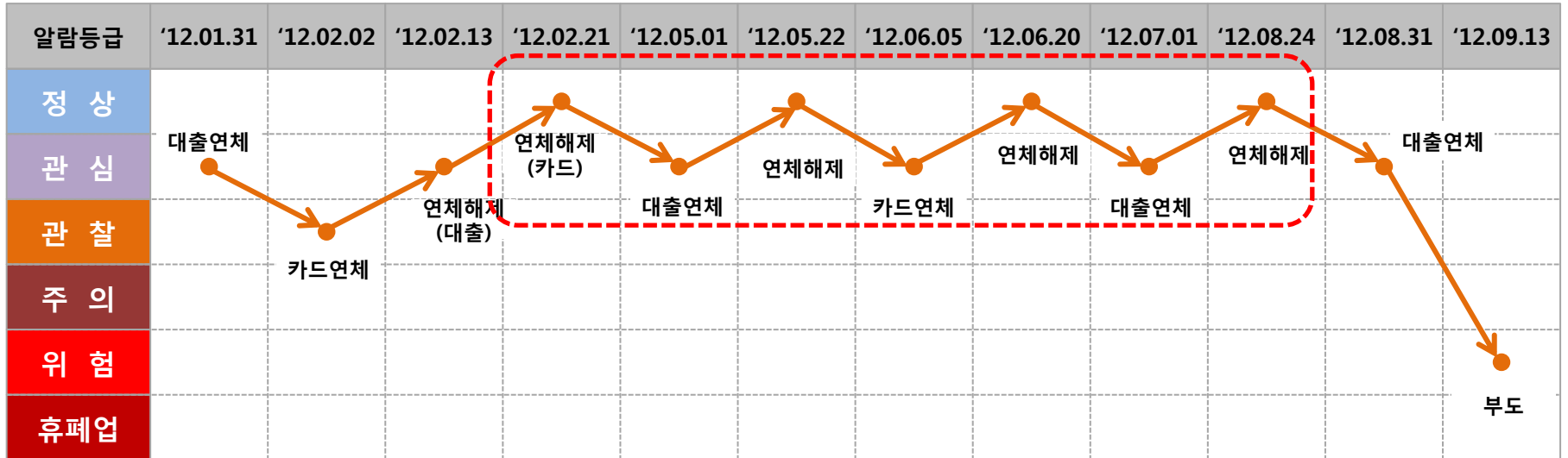
2012년초부터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금 연체와 해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012년 6월 연체해제이후 2012년 7월 다시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였고, 금액과 건수가 확대되었다가
 2012년 9월 일시적으로 연체해제하였다.
 다시 2012년 10월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2013년 1월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연체와 해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다중 연체가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인 자금사정 악화를 의미한다.
 1개월 이내 연체가 해소 되지 않거나, 연체와 해제가 반복된다면, 즉각적인 외상거래를 중단이나 거래규모를 축소하여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기업단기연체정보를 활용한 부실징후 판단 사례(2) : 서비스업종

연체(대출금, 카드 등)와 해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부도 가능성 높음

: 최소 3개월이내 연체와 해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 유동성 문제라기 보다는 근본적 자금사정 악화



(주)OOO은 2008년 설립된 서비스업체로 2012년 9월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2012년 1월부터 거의 한달간격으로 대출(원금/이자) 및 카드 연체 → 해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연체와 해제가 반복되는 것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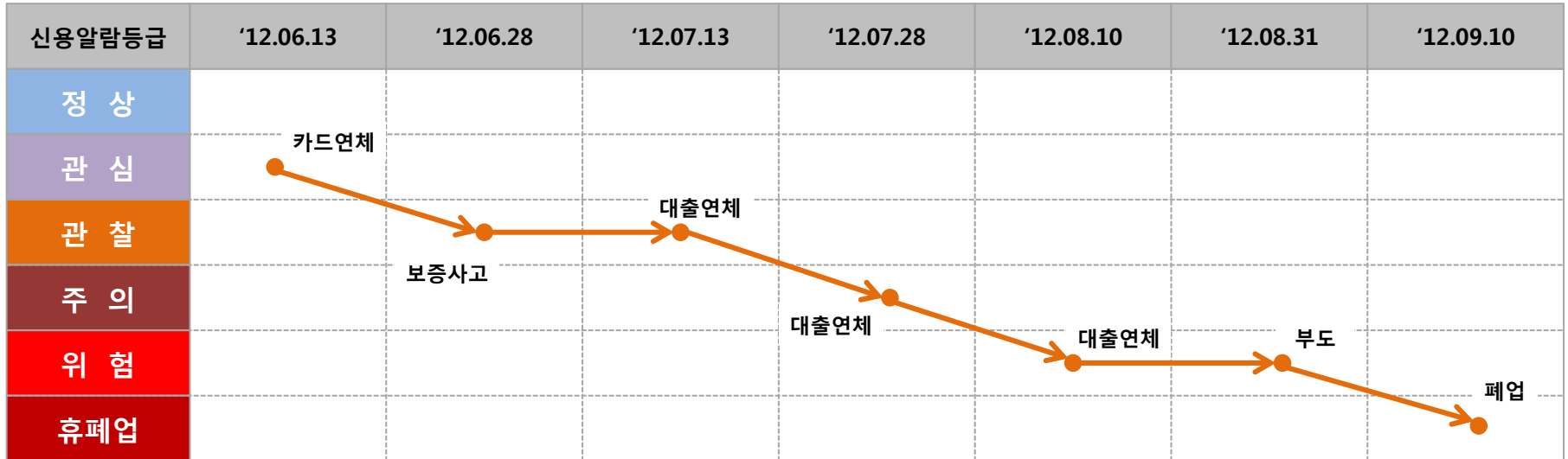
일시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연체를 갚았다가 다시 연체가 발생하는 구조적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연체와 해제가 반복되는 기업은 신규 자금 유입이 차질을 빚을 경우 결국에는 부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연체와 해제의 반복 패턴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외상거래를 중단과 거래 규모를 축소하여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기업단기연체정보를 활용한 부실징후 판단 사례(3) : 건설업종

연체 건수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 부도 가능성 높음

: 연체 건수와 규모의 확대는 자금사정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주)OOOO은 2007년 설립된 건설업체로 2012년 8월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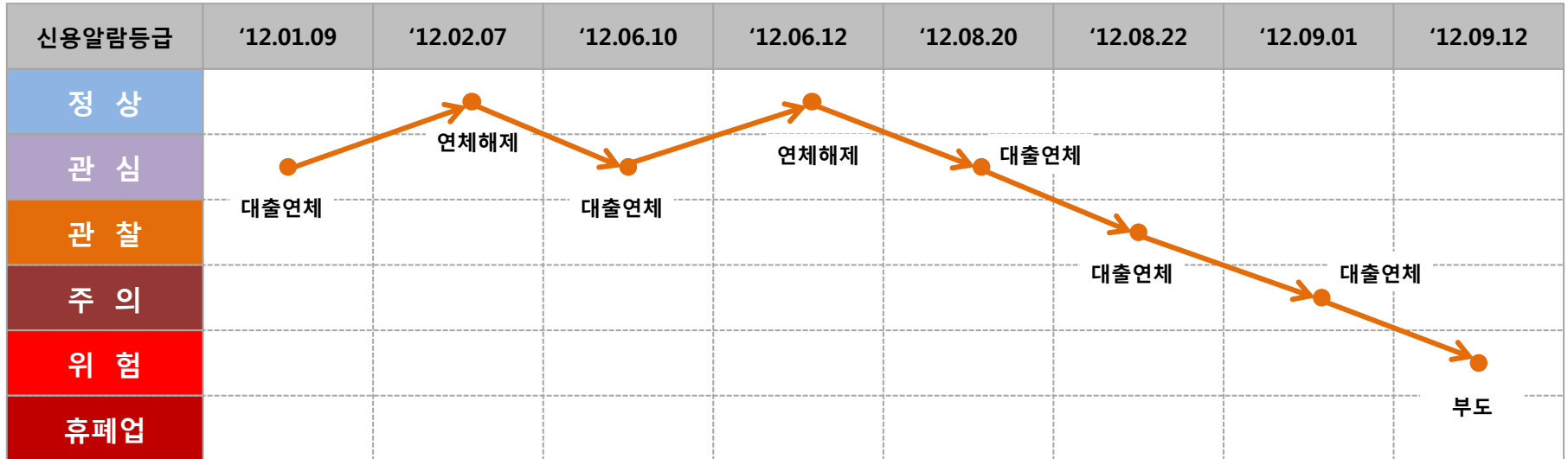
2012년 6월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카드 연체가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출금연체 등으로 확대되어, 2012년 8월 최종 부도 처리된 이후, 2012년 9월 폐업하였다.

연체 건수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자금난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기간내에 연체 건수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단기연체정보를 활용한 부실징후 판단 사례(4) : 건설업종

6개월이내 연체해제 이후 다시 연체발생 → 부도 가능성 높음

: 1개월 이상의 연체를 해제한 후 6개월이내 다시 연체가 발생한 경우는 부도 가능성 높음



(주)OO건설은 1994년 설립된 건설업체로 2012년 9월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2012년 1월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월에 자금유입으로 연체해제하였다.

그러나, 2012년 6월 다시 연체가 발생하였고 단기간(2일)에 연체해제하였다.

그 후 2012년 8월 다시 연체가 발생하였고 결국 2012년 9월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과거 연체 발생 이후 해제되었다가 다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자금난은 해소하였으나, 근본적인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소한 6개월이내 연체와 해제가 반복되는 현상을 보인다면, 외상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